

제3차 한·일 수자원 및 환경 심포지움 참가보고

윤성범 (한양대학교 토목 환경공학과 부교수)

한국과 일본의 수자원 및 환경관련 산·학·연 공학자와 과학자들의 교환 세미나인 제3차 한·일 수자원 및 환경 심포지움(3rd Korea-Japan Bilateral Symposium on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Research)이 1998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본 학술회의는 수자원 및 환경분야의 질적향상을 목표로하는 양국 연구자와 공학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 및 실무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되는 본 회의는 1차는 한국에서, 2차는 일본 Hokkaido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움의 총 발표논문은 56편으로 주요주제와 주제별 발표편수는 다음과 같다.

- Computational Hydraulics (4편)
- Modeling of Watershed System (5편)
- Fluvial Hydraulics (10편)
- Hydraulics and Water Quality in Lake (5편)
- Flood and Reservoir Operation (5편)
- Ground Water and Remediation and Leachate Flow (4편)
- Hydrology and Water Resources (4편)
- Scour Countermeasures and Erosion (5편)
- Hydrodynamics and Environmental

Hydraulics (7편)

- River, Coastal and Maritime Hydraulics (7편)

심포지움은 먼저 이번 대회의 의장인 한양대학교 윤태훈 교수로부터 개회사가 있었으며,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이원환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초청 강연으로는 Hokkaido Univ.의 Shimiju교수가 "Historical Review of Flood and River Improvement Works in Hokkaido"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학회의 공식적인 후원은 없었으나 국내 학계, 연구소, 업계의 수자원관련 연구자 74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주로 Hokkaido 소재 4개 대학에서 3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움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논문발표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수자원 및 환경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학문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논문발표가 완료된 대회 2일 저녁 Hotel Novotel에서 만찬연회가 열려 양국 참가자들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다음 날에는 일본측 참가자들을 위한 소양강 다목적댐 및 이천·광주도요지 관광이 있었다. 다음 4차 대회는 일본측 초청으로 Hokkaido의 Muror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